

【논 문】

군기(軍旗)와 과학 — 만주사변 이후 경성제국대학의 방향전환 — *

정 준 영**

┌ 차 례 ─┐

- I. 들어가며 : 경성제대의 방향 전환
- II. 위기의 대학과 ‘만몽’의 발견
- III. 만몽문화의 개발, 그 이상과 현실
- IV. 만몽에서 대륙으로 : 전쟁도구로서 연구조직
- V. 나가며 : 군기와 과학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의 설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만주사변 이후 경성제대가 모색했던 방향전환의 의미와, 그 결과로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던 ‘대륙’연구가 가졌던 지향과 특징을 검토했다. 경성제대는 만주사변 이후 일본제국의 판도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만몽’을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륙유일의 제국대학’으로서 경성제대의 존재의의를 새삼 인정받고자 시도했다. 대학의 전학적인 연구조직인 만몽문화연구회와 이것의 확장버전인 대륙문화연구회는 경성제대의 고유한 연구기반을 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양문화’에서 제국의 대륙적 확장에 부응하는 만몽문화, 나아가 대륙문화로 확대해 나가려는 대학 나름의 시도였고, 새롭게 학문적 대상으로 부상한 ‘대륙’을 둘러싸고 누가 제국의 국책에 부응할 것인가를 다투는 경합의 산물이었다. 경성제대는 대륙연구를 통해 국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71-E00002)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

체(國體)와 학리(學理)의 공존, 군기(軍旗)와 과학의 깃발의 일치를 모색했지만, 결과적으로 학리와 과학은 국체와 군기 속에 파묻혀 철저히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주제어 : 경성제국대학, 만몽문화연구회, 대륙문화연구회, 몽강학술탐험대, 만몽문화, 만주사변

I. 들어가며 : 경성제대의 방향전환

이 글은 1926년 식민지에 설립된 첫 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이 만주사변 이후 “대륙 유일의 제국대학”으로 대학의 존재의의를 재규정하면서 대학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대륙” 연구에 뛰어든 경위 및 그 역사적 의미를 추적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경성제대는 만주사변 이후 일본제국의 판도에 새롭게 편입된 만주, 내몽고 지역에 대해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이 1932년 당시 경성제대 총장 아마다 사부로(山田三良)의 발의로 발족된 전학(全學) 조직인 ‘만몽문화연구회(滿蒙文化研究會)’였는데, 이 단체는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1937년에는 ‘대륙문화연구회(大陸文化研究會)’, 1945년 6월 제국대학의 부치(附置) 연구소인 ‘대륙자원과학연구소(大陸資源科學研究所)’로 확장되어 나간다. 특히 대륙자원과학연구소는 천황의 칙령으로 규정되는 연구시설이었기 때문에 기존 대학 학부조직과는 별도로 연구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성제대의 ‘대륙’연구 체제는 또 다른 식민지의 제국대학이었던 다이호쿠(台北)제국대학의 ‘남방·열대’연구와 대비되어, 경성제대 특유의 학문적 특색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성제대가 설립 당초부터 만주와 내몽고 연구, 다시 말해 ‘대륙

연구'에 대해서 뚜렷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경성제대의 설립은 대학설립을 둘러싸고 전개된 식민지사회와의 경합 속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식민권력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사회가 독자적으로 혹은 외국인 선교사 세력 등과 결탁하여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서둘러 설립되었던 것이 경성제대였다.²⁾ 조선인들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안팎으로 과시하는 한편, 식민통치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학술지식 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의도 또한 없지 않았지만, 대학의 설립을 통해 “半島諸般의 進展에 寄與”하기를 바랐던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경성제대는 어디까지나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는 ‘내부용’ 카드라는 측면이 강했던 셈이다.³⁾

이런 상황에서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31년 9월 발발한 만주사변 및 1932년 3월 ‘괴뢰국’ 만주국의 등장이었다. 만주사변 및 만주국 설립의 경위 및 특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 상술하지 않겠지만, 당시 일본 학계에 미친 여파는 엄청난 것이었다. ‘쇼와 공황’의 반대급부로 이른바 ‘만주열풍’이 들끓는 가운데, 새삼 ‘제국의 판도’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만주 및 외몽고 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⁴⁾ 관동군은 독단적인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본토 및 식민지에 적극적인 선전공작을 전개했고, 그 결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동안 50개 이상의 단체가 ‘만몽문제’에

-
- 1) 패전 이전 제국일본의 연구체제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는 廣重徹, 2002, 『科學の社會史』, 岩波書店을 참조
 - 2) 경성제대의 창출과정 및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논문을 참조.
 - 3) 물론 대학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새로 출범한 경성제대에 걸었던 기대가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창설 당시 범문학부장 대리를 맡았던 교수 安倍能成의 발언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철저하게 식민정책적인 차원에서 대학을 바라보는 식민당국의 시각에 제동을 걸고, 대학의 보편적인 기능으로서 연구분위를 제기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정준영, 2009, 앞의 논문, 112~120쪽을 참조.
 - 4)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5~110쪽.

대한 연구를 표방하면서 결성되었다.⁵⁾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 1929년 설립)과 같이 중국 중심의 동양연구를 지향하던 기존의 주요 연구조직들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학술조사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⁶⁾ 요컨대 1930년대 초반 ‘만몽(滿蒙)’은 제국일본의 판도에서 국책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경성제대가 만몽문화연구회를 출범시켰던 1933년 11월이라는 시점은 이처럼 일본 본토 안팎에서 거세게 불고 있었던 시기로, 당시 시국의 영향 속에서 난립했던 수많은 ‘만몽연구’ 단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분과학문 또는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던 다른 ‘만몽연구’ 단체들과는 달리, 만몽문화연구회는 경성제대의 주요 교직원들이 ‘만몽문화’라는 공통의 키워드 아래에서 전공영역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 차원의 연구조직을 지향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기능했다는 점에서 크게 차별화되었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분권적 성향이 강했던 제국대학에서 이런 전학적인 연구조직을 꾸리는 경우는 1930년대 초반까지는 극히 드물었다. 이 전학적인 연구조직은 시국의 변화에 따라 ‘만몽’에서 ‘대륙’으로, ‘문화’에서 인적·물적 ‘자원’으로 강조점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유지되었고, 패전 직전에는 결국 대학의 공식적인 연구소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창설당시 ‘조선연구’를 통해 동양문화의 권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던 경성제대는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초점을 조선에서 ‘만몽’으로, ‘몽강(蒙疆)’으로 옮겨가며 이른바 ‘대륙’ 연구에 사활을 걸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렇다면 경성제대는 정말로 대륙연구와 관련하여 모종의 ‘방향전환’을 모색했던 것일까. 후술하겠지만, 당시 경성제대가 새로운 시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대륙 유일’의 제국대학으로써 대학의 이념 및 학술적 지향에

5) 藤原彰・功刀俊洋 編, 1983, 『資料日本現代史8』, 大月書店, 220~230쪽.

6) 동방문화학원의 설립경위 및 그 특징에 대해서는 阿部洋, 2004, 『『對支文化事業』の研究』, 汲古書院 및 山根幸夫, 2005, 『東方文化事業の歴史—昭和前期における日中文化交流』, 汲古書院을 참고할 것.

중요한 수정을 가했던 것은 분명하다. 만몽문화연구회가 결성되었던 1932년은 다이쇼천황의 사망으로 연기되었던 경성제대 개학식이 공식적으로 거행되었던 해로, 연초부터 각종 행사를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대학의 방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였다. 전년인 1931년 10월 4대 총장으로 취임한 아마다는 조선에 건너온 직후부터 당시 만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대학총장으로써 자신의 구상을 개학식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개학식 직후 결성된 만몽문화연구회는 이런 총장의 구상을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하는 첫 조치였다.

하지만 이런 경성제대의 방향전환은 대륙침략의 가속화라는 시국적 상황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로만 볼 수 있을까. 경성제대의 ‘대륙’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일본의 대륙침략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문은 도구화되고, 대학은 병영화 되어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⁷⁾ 망각과 은폐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경성제대의 대륙 조사연구에 대한 상세한 경위와 특징에 대해서는 이들의 수고에 의해 상당부분 해명되었다. 특히 全京秀의 연구는 전투를 전문으로 하는 군사조직,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관료조직, 그리고 대학이라는 조직 사이의 긴밀한 결합⁸⁾이 전시(戰時) 식민지 경영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경성제대의 학술조사를 이 MAB복합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대학과 국가, 전쟁과 학문 사이의 상호 연루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경성제대가 단순한 이데올로기 도구라는 측면을 넘어서, 鄭圭永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마치 苦待하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전쟁의 전개에 대응하여, 신속히 대학의 연구조직을 정비하였고”, 왜 그처럼 “탐욕스러운 정도로 대륙의 새로운 점령지를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을 제공해

7) 鄭圭永, 1999, 「콜로니얼리즘과 學問의 정치학-15年戰爭下 京成帝大대학의 대륙연구」, 『教育史學研究』 9輯; 全京秀, 2005, 「아편과 천황의 식민지/전쟁인류학 : 학문의 對民關係」, 『한국문화인류학』 38(1); 全京秀, 2010, 「京城帝國大學의 學術調査와 『京城學派』의 誕生」, 『朝鮮學報』 214.

8) 全京秀는 이것을 군(Military) - 학(Academic) - 관(Bureaucrats) 복합체(complex), 즉 MAB 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 분석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全京秀, 2010, 앞의 논문을 참조.

주지는 못한 것 같다.⁹⁾ 물론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치대상에 대한 지적 포획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반복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전황이 시시각각 불리해져가는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대학이 주도하는 학술조사를 군부와 관료들이 정말로 시급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요컨대, 경성제대의 대륙연구가 비록 全京秀의 표현처럼 시국적 “狀況”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활을 걸었다고 할 만큼 적극성을 띠었던 이유를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⁰⁾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경성제대의 차원에서 방향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왜 경성제대는 1932년의 시점에서 ‘만몽’연구에 사활을 걸었던 것일까? 당시 경성제대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또 ‘만몽’연구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转机(轉機)가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발생적 조건’은 만몽문화연구회, 대륙문화연구회, 대륙자원과학연구소로 이어지는 경성제대 대륙연구의 조직적 흐름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식민지대학 경성제대의 식민지적 조건과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만몽문화연구회의 결성과 대륙문화연구회로의 개편을 통해 드러나는 경성제대 대륙연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9) 鄭圭永, 1999, 앞의 논문, 36쪽.

10) 鄭圭永(1999)과 全京秀(2010) 등 기존의 탁월한 연구들이 학문의 전경도구화와 대학의 병영화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면서도, 이 쟁점과 관련하여 경성제대가 가진 차별적 지점을 특정(特定)하지 못한 채 “본질적 차이는 없다”(鄭圭永),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全京秀)라는 논의에서 멈추고 마는 것은, 경성제대에 처했던 식민지적 상황 및 그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결락(缺落)했거나 이것을 제국의 문제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II. 위기의 대학과 ‘만몽’의 발견

1. 식민사회의 현실과 대학의 고립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성제대는 식민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다. 공식적인 창설위원회가 출범한지 6개월 만에 천황의 칙령으로 대학 설립이 확정되었고, 1924년 예비교육기관인 대학예과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예과졸업생이 배출되는 1926년 경성제대는 법문학부와 의학부, 2개의 학부로 공식 출범했다. 제국일본이 식민지에 설립한 최초의 제국대학이었으며, 제도, 문화 뿐 아니라 특유의 특권마저도 철저하게 본토 제국대학을 답습한 엘리트 대학이었다. ‘초등-중등-고등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교육제도의 완성’, ‘서양의 식민통치와는 차별화되는 동화정책의 현실적 실현’, ‘특색 있는 조선연구를 통한 동양문화의 권위 확립’ 등 갖가지 미사여구가 대학의 설립에 헌정되었고, 식민당국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재조일본인, 식민지조선인들의 기대(쉬인 우려)가 여기에 덧붙여졌다.

하지만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설립과정과는 별도로, 실현된 경성제대가 식민지 사회 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 현실을 묻는다면 사정은 다소 달라진다. 화려했던 탄생과는 달리, 경성제대가 직면했던 식민지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던 탓이다. 현실의 경성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있는 자료는 실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1941년 제국대학신문사가 간행한 수험안내서 『제국대학입학안내』라는 책에 실린 「고뇌하는 행인(なやむ路傍の人)」은 무척 흥미로운 예시이다. 여기에는 경성제대의 학생생활이 학교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쓸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신랄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40년대가 되어서도 불식되지 않았던 경성제대의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익명의 필자는 대학주변 주민들의 외면으로 번듯한 서점은 고사하고 “노트 한권을 사려고 해도 변화가인 本町”까지 외출해야 하는 척박한 대학생생활을 소개하

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물가도 비싸고, 하숙비도 비싸고, 심지어 잡지까지도 外地정가를 메기는 이 땅의 학생생활은 시대적 고민, ‘숙명적 煩悶’이 있다. 학생은 일단 교실을 나가면 모든 장소에서 ‘그저 길 지나가는 사람[路傍の人]’일 뿐이다. 대학의 창립이 지방민의 열의에 의해 생겨한 것이 아니라 ‘아마구다리[天下り]’ 대학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시민들과의 조화를 결여하고 있으며 점점 더 명량함도 잃어간다. 시마키 겐사쿠(島木健作)씨의 말을 빌리면, “경성은 우선은 대충 무어라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무 것도 없는 곳”인 모양이다. 이 말은 그대로 京城帝大의 現狀에 대해서도 타당할지 모르겠다.¹¹⁾

‘아마구다리[天降り]’ 대학.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낙하산’ 대학이라는 이 말은 설립 이후 17년이나 지나도 여전히 식민지의 생활세계에서 동떨어져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었던 경성제대의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다. 앞서도 잠깐 살폈지만, 경성제대는 시종일관 조선총독부의 기획과 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였다.¹²⁾ 1919년의 3·1운동 이후, 거세게 제기되었던 식민지 인민들의 대학설립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는 단기간에 대학설립을 끝마쳐야 했다. 1922년부터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 조선총독부는 1923년 예과건물을 완성한 직후 대학창설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다음 해 설립이 확정되기도 전에 입학생들을 미리 선발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조선인 사회는 물론, 재조일본인 사회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심지어 일본 본토의 고위 정책담당자들조차 전례 없는 밀어붙임에 분노했을 정도였다. 대학의 설립은 철저하게 총독부의 독주 속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경성제대의 설립을 통해 식민사회 내부에 헤게모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의도는 식민지교육체제를 정착시

11) 帝國大學新聞社 編, 1941, 「なやむ路傍の人」, 『帝國大學入學案内』, 帝國大學新聞社, 147쪽.

12) 경성제대의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2차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丁仙伊, 1998, 「경성제국대학의 성격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鄭駿永, 2009, 앞의 논문.

켰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것은 1910년대 이래 조선인들의 호응 속에서 시도되었던 ‘대안적’ 대학설립의 시도가 1924년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에 의해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대학설립을 전후로 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교육열’과 ‘진학경쟁’이 뚜렷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교육열의 근원에는 3·1운동의 좌절 이후 체계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신학문’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學의 隸屬’¹³⁾을 극복해야 한다는 준비론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겠지만, 식민지통치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제한된 학력경쟁을 통해서나마 ‘입신출세’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세속적 시각 또한 여기에 잠재(潛在)되어 있었다. 이처럼 경성제대가 ‘제국의 最高學府’로써 양적, 질적인 면에서 대안적 대학설립의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식민체제 하에서 제한된 ‘입신출세’의 통로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 ‘內地準據’, 다시 말해 식민본국과의 ‘제도적 同型化(institutional isomorphism)’를 원칙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경성제대를 ‘제국대학’으로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헤게모니 기획(hegemonic project)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성제대는 총독부의 독주 속에 무리를 무릅쓰고 설립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처음부터 식민지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설립이 절실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재조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이 제기했던 ‘시기상조론’을 억누르면서 식민당국이 강행했던 대학설립이란 것은 실은 조선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에 불과했을 터이다. 한편 대학설립을 통해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식민당국의 명분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성제대는 예과시험의 차별

13) 조선총독부의 대학설립 추진에 대해서 조선인사회는 대체로 이것을 ‘學의 隸屬’으로 비판하고, ‘學의 獨立’이라는 차원에서 民立大學設立運動의 의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했다. 「民立大學의 必要를 提唱하노라 : 富豪의 一考를 促함」 『東亞日報』 1922년 2월 3일 宇社說.

적 성격에서도 확인되듯이 또 다른 민족차별의 도구에 불과했다. 이들은 경성제대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대학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근거로 조선본위의 교육을 강하게 요구했다.¹⁴⁾ 하지만 대학설립자인 식민당국로서는 이러한 재조일본인 집단과 조선인 집단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웠다. 재조일본인 집단의 입장에 호응한다는 것은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헤게모니 기획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선인엘리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內鮮共學”에 함축된 식민통치의 전략적 효과¹⁵⁾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는 식민지의 관립대학이 제국대학의 기준을 충족시키길 바랐던 대학의 교수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제국적 관점에서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의의를 무시하는 재조일본인의 ‘식민주의적’ 시각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제국대학 공통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식민주의적’ 효과를 폭로하고 있는¹⁶⁾ 조선인 엘리트들의 요구 또한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성제대는 재조일본인들과 조선인사회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양자로부터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경성제대의 이런 고립적 상황은 설립이후 식민당국의 재정적인 지원마저도 줄어들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28년 강좌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식민당국은 1929년을 기점으로 예

14) 「奇怪한 教警一致」, 『동아일보』 1924년 3월 14일자 사설; 「主客顛倒의 高等學府: 누구를爲한 官學인가」, 『中外日報』 1930년 3월 23일자 사설.

15) ‘내선공학’의 실질적인 의미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을 식민통치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선공학’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이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조선인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아 규모의 면에서 약세에 있었던 일본인과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당국은 ‘내선공학’의 취지를 들어 식민지에 고등학교 설립을 반대했던 것이다.

16) 이미 조선인엘리트들은 제국보편의 학력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발을 시행한다는 총독부와 대학당국의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1924년 예과시험에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조선인 학생들에게 고대일본어의 지식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대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1924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1924년 3월 31일자.

산지원을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했다. 1929년 2,256,384엔에 이르렀던 경성제대의 경성예산은 1932년에는 4분의 1이 줄어든 1,719,796엔까지 축소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의 비중이 높았던 상황에서 실제 운영경비가 상당부분 삭감되었기 때문에, 경성제대는 설립 후 5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부터 사실상 강좌유지에 급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¹⁷⁾

그런데 이처럼 대학설립에 적극적이었던 식민당국이 정작 대학운동을 지원해야 할 시점에서 소극적으로 변했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식민당국이 헤게모니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설립 그 자체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었지만, 정작 대학이 설립된 이후 이를 식민통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구상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실제로 식민당국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제국대학’의 설립을 통해 식민지가 ‘본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식민지사회 안팎에 과시하는 것이었다. 대학설립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내지준거주의’, 즉 식민모국과 식민지 사이의 ‘제도적 동형화’만으로도 차별적 처우에 불만을 품은 식민지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혜택’을 받은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던 모양이다.¹⁸⁾ 하지만 이런 낙관적 ‘이상주의’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한계에 직면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내지준거’의 제도개혁은 경제 불황의 여파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고, 식민지의 조선인들에게 기대했던 효과도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식민지사회의 불신과 불만은 ‘제도의 동형화’만으로는 불식되기 어려울 정도로 근원적이었다.

둘째, 1930년대 들어 식민당국의 정책기조가 변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

17) 경성제대의 경성예산은 193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929년 수준을 회복했을 정도였다. 경성제대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大藏省年報』 각 연도판 및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歳入歳出豫定計算書各目明細書』, 1938, 1941, 1942년을 참조.

18) 이것은 당시 일본총리였던 原敬가 1919년 무렵 새로 부임하는 조선총독 및 정무총감에게 보낸 비밀문서 「朝鮮統治私見」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가 있었다. ‘내선융합(內鮮融合)’을 강조했던 우가키(宇垣一成) 총독부는 조선 인사회 내부로부터 식민통치를 위한 헤게모니를 확보한다는 전략에 있어서는 사이토(齋藤實) 총독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헤게모니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전술의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전임 총독부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강했다. 1920년대 총독부의 통치기조가 대체로 식민지의 제도를 본국과 동일하게 ‘개혁’함으로써 본국과 식민지의 완전한 통합(즉, 동화)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1930년대 총독부는 식민지를 본국의 자본주의적 시장구조에 편입시킴으로써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실질적인 의존관계의 강화를 꾀했다.¹⁹⁾ 1930년대 총독부의 교육정책이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²⁰⁾ 이에 따라 경성제대가 가졌던 헤게모니 기획으로서의 위상 또한 변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헤게모니 기획으로서 경성제대가 가졌던 가치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식민교육정책의 초점은 아무래도 경성제대보다는 초등교육의 확산을 통한 조선인 노동자의 양성에 맞추어졌던 것이다.

2. 방향전환의 모색 : 대륙적 사명과 ‘문화개발자’로서의 대학

이처럼 설립 이후 경성제대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경성제대로서는 이런 고립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설립과정에서와 같은 식민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제 기대하기 어려웠다. 근대학문에 대한 지적 욕구, 입신출세 경향의 확산 등으로 경성제대 입학을 지망하는 지원자의 수는 지속 늘어났지만, 경성제대의 존재의의를 둘러싼 식민지 사회의 회의적인 시선은 결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설립자인 조선총독부는 여전히 경성제대를 철저히 식민지교육의 관점에서만 접근했다.

19) 이만규, 1949, 『조선교육사』 하권, 302~310쪽.

20) 大野謙一, 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200쪽.

경성제대 학내의 교수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경성제대에 소속된 이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의 내실을 갖추어 ‘제국대학의 일원’으로서 자타의 공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이것은 경성제대의 첫 졸업식에서 법문학부장 아베(安倍能成)가 느꼈던 위기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조선사회가 경성제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직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는 신홍대학으로서 그 조직에 있어서도 그 노력에 있어서도 다른 제국대학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 외에 우리 대학의 입지를 확보할 길이 없다”고 강변했다.²¹⁾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제군들과 우리들”, 다시 말해 대학인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가 되었던 것이,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1931년 9월 발발한 만주사변이었다.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까지 부각되었던 전쟁열풍(war fever)에 대해서는 이미 서론에서도 언급했기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군사적 모험주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창출되었던 인위적인 공간인 ‘만몽’은 경제 불황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던 일본의 학계·대학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었으며 이는 경성제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었다는 사실은 다시 확인해 두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도 경성제대는 이 새로운 기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주도했던 것은 1931년 10월 경성제대 4대 총장에 취임한 야마다 사부로(山田三良)였다. 그는 교수회의 추대로 경성제대 총장이 되기 이전부터²²⁾ 국제법의 전문가답게 만주의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총장 부임 직후인 1932년 3월에는 갓 탄생한 만주국을 시찰하여 이시하라(石原莞爾), 이타가키(板垣征四郎) 등 만주사변의 주모자들과 만나기도 했다.²³⁾ 그리고 이 만주국 시찰의 성과는 대학의 공식행사를 통해 즉시 보고

21) 安倍能成, 1929, 「卒業生に残す」, 『文教の朝鮮』 46號, 51쪽.

22) 야마다는 경성제대 총장 중에서 교수회의 자치를 통해 추대된 첫 총장이었다. 식민지대학의 대학 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준영, 2011,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방식 :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 『역사문제연구』 26호를 참조.

되었다. 1932년은 순종의 서거로 연기되었던 경성제대 개학식이 10월 15일 거행되기로 예정된 해였는데, 실제 개학일인 5월 2일에 야마다 총장은 ‘개학기념강연’의 형식으로 「최근의 만주시찰담(最近の滿洲視察談)」이라는 강연을 행하였다.²⁴⁾ 만주국 시찰에서 얻은 인식을 기반으로 경성제대의 새로운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1932년 10월 경성제대의 공식적인 개학식 자리에서는 이런 방향전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가 총장의 발언으로 표명되었다.

이 공식 개학식 석상에는 우카키 조선총독과 이마이다(今井田清徳) 정무총감을 비롯하여 역대 대학총장을 역임했던 핫토리(服部宇之吉)와 마쓰우라(松浦巖次郎, 당시 규슈제대 총장)가 직접 참석하였고, 경성제대 창설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사이토 수상 및 본토의 문부대신과 척식대신 등이 대리를 보내 축사를 읽도록 하는 등 성대하게 거행되었다.²⁵⁾ 이 자리에서 야마다 총장은 경성제대의 존재의의와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본 대학은 조선에서 유일한 最高學府이며, 단지 半島의 문화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滿蒙을 비롯하여 아시아대륙의 문화개발에도 공헌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진 제국대학입니다.²⁶⁾

만몽’과 ‘아시아대륙의 문화개발’로 요약될 수 있는 총장의 발언은 물론 “西鄰新國家” 즉 신생 만주국의 발달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는 사이토 수상의 축사²⁷⁾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시국적 상황에 대한 대학의 대응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담고 있다. 하지만 총장의 발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조선을 다시 위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사명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 이 발언에는 만몽을 위

23) 山田三良, 1957, 『山田三良自叙傳』, 自家出版, 223쪽.

24) 「彙報-開學記念式」 『京城帝國大學學報』 第63號, 1932년 6월 5일자.

25) 「彙報-開學式」 『京城帝國大學學報』 第68號, 1932년 11월 5일자.

26) 「開學式に於ける山田總長の式辭」 『京城帝國大學學報』 第69號, 1932년 12월 5일자.

27) 「彙報-開學式祝辭」 『京城帝國大學學報』 第68號, 1932년 11월 5일자.

시한 ‘대륙’을 중심으로 대학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대륙으로 팽창하는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려 했던 그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대학이 설립될 당시 총장이었던 핫토리(服部宇之吉)가 표방했던 경성제대의 사명과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핫토리는 1926년 학부가 공식출범하는 시업식(始業式)에서 조선의 위상과 대학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라는 땅은 예부터 한편으로는 支那, 다른 한편으로는 内地에 대해 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중략) 문화의 관계를 가지고 말해보아도, 内地의 문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선의 연구가 밝혀주는 바가 적지 않으며, 조선의 문화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支那의 연구에 의해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문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支那의 연구가 밝혀주는 바가 적지 않으며, 内地의 문화의 연구가 조선의 연구에게 밝혀주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론 支那와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内地와의 관계를 가지고 諸방면에서 폭넓게 조선을 연구해서 동양문화의 권위가 되는 것이 本學의 使命이라 믿는다.²⁸⁾

핫토리에 따르면, 제국에서 조선이 가졌던 특수한 위상은 문화 및 역사의 견지에서 조선이 지나(즉, 중국)와 내지(즉, 일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연구는 단순히 조선 자체에 관한 연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신을 원동력으로 삼아” 지나(중국)-조선-내지(일본) 사이의 문화적 관계를 폭넓게 고찰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핫토리 총장은 경성제대가 조선연구를 통해 “東洋文化의 權威”가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고, 이를 경성제대의 핵심적인 使命으로 삼았다.

물론 조선의 역할을 ‘가교(架橋)’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총장

28) 服部宇之吉, 1926, 「京城帝國大學始業式に於ける總長訓辭1」 『文教の朝鮮』 10호(1926년6월), 7쪽.

의 발언은 초대 핫토리 총장이 주창했던 취지와 유사하거나 최소한 연장선 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는 분명 존재했다. 야마다는 제국관도 속의 조선의 입지를, 내지와 ‘지나’의 사이가 아니라 내지와 ‘만몽’ 사이에 위치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朝鮮은 古來 滿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往時 文明東漸의 무렵에도 교량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文明西漸의 교량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다. 氣候風土, 生活狀態 등 滿蒙開發者로 가장 適任이기 때문에 現時에도 벌써 滿洲에 거주하는 자 약 10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本學은 단지 朝鮮半島의 文化開發에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滿蒙의 문화도 개발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²⁹⁾

야마다 총장에 따르면, 조선은 ‘지나’가 아니라 만몽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존재로서, 만몽에서 내지로 이어지는 북방 대륙문화의 “문명동점(文明東漸)”에 있어서 “가교(橋)”가 되어왔다. 더욱이 이러한 조선의 역할은 역사나 문화의 측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만주사변 이후 당시의 시국 상황을 단순히 군사적 팽창이 아니라 내지에서 조선을 거쳐 ‘만몽’으로 이어지는 “문명서점(文明西漸)”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조선은 이러한 문화개발의 과정을 매개하는 “가교”라는 현제적인 의미를 새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선이야말로 ‘만몽개발’의 책임자로 적극적 재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야마다 총장은 “만몽개발자”라는 조선의 현실적 가치를 새삼 발견함으로써, 조선에 자리 잡은 경성제대에 대해서도 새로운 존재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대학설립 당시처럼 대학의 사명은 조선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연구를 통해 “동양문화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도’와 ‘만몽’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개발’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

29) 『第5回 卒業式辭』 『京城帝國大學學報』 第73號., 1933년 4월 6일자.

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라는 용어 대신에 ‘개발’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쓰이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역할은 학문 또는 과학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정책적 과업에 수렴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고립적인 연구 활동과 대비되는 새로운 학제적 조직기반을 요청한다. 개혁신학 발언 직후 아마도 총장이 ‘만몽문화연구회’라는 새로운 전학적 연구조직을 제안했던 것은 이런 의미에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성제대는 설립 직후 식민당국의 지원감소, 식민지사회 속의 고립심화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만몽의 부상이라는 절호의 시국적 상황을 맞이했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은 사실 일제의 대륙침략이라는 폭력적 과정에 다름 아니었지만, 이를 호도할 목적으로 표방되었던 ‘만몽문화의 개발’은 위기의 경성제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경성제대는 학문과 과학의 이름으로 ‘만몽문화’의 실질적 내용을 구축해 냄으로써 변방 식민지대학이 아니라 “대륙 유일의 제국대학”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려 했다. 또한 개별적이고 분산적이기 마련인 개별적인 전문 연구 활동을, 대학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문화개발’이라는 구체적인 활동 속에 수렴시킴으로써 식민지사회로부터 ‘고립’을 극복하려 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로 실현된 것이 1932년 11월 7일 결성된 만몽문화연구회였다.

Ⅲ. 만몽문화의 개발, 그 이상과 현실

1. 만몽문화연구회의 결성과 그 의미

만몽문화연구회가 경성제대가 ‘만몽문화의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모색된 것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대로다. 그렇다면 만몽문화연구회란 어떤 단체였을까. 만몽문화연구회가 발행한 간행물

에는 이 연구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규약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 대략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만몽문화연구회는 아마도 총장의 제안으로 결성되었는데, “滿蒙文化의 학술적 연구 및 조사”와 “만몽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했다. 규약에 정해진 연구회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³¹⁾

[표 1] 만몽문화연구회의 사업규정

滿蒙文化의 학술적 연구 및 조사	인문 과학	만몽에 관한 역사 및 지리 만몽에 있어서 유적 및 유물 만몽 諸민족의 언어, 종교, 및 민속 만몽에 관한 경제 및 산업 만몽에 관한 舊慣 및 法制 그 밖의 만몽에 관한 인문과학적 연구사항
	자연 과학	만몽 諸민족의 체질인류학 만몽에 관한 약물학 만몽에 있어서 동물, 식물, 및 광물 그 밖의 만몽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사항
그 밖의 事業	圖書 및 資料의 蒐集 圖書 및 資料의 供覽 研究調查報告의 刊行 學術講演會, 研究會 등의 開催 研究調查旅行 滿洲國, 그 밖의 内外 學術연구단체 및 연구자와의 連絡, 提携	

이 규약에 나와 있듯이, 연구회는 경성제대 교수들의 연구관심의 연장선 상에서 만몽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자료의 수집, 연구의 간행, 학술강연회의 개최, 연구 네트워크의 형성 등 이런 연구의 성과를 요즘의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전개하고자 했다. 이런 연구회의 취지 및 활동 내역은 사실 ‘만몽’ 또는 ‘동아(東亞)’를 내세우면서 등장했던 당시 수많은 연구조직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연구회의 위상과 조직적 특징을 면밀하게 검토해

30) 京城帝國大學 滿蒙文化研究會 編, 1934, 『滿蒙文化研究會報告』 제1책, 155~156쪽.

31) [표-1]은 만몽문화연구회의 규약 제3조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보면, 유사해 보이는 당시의 다른 ‘만몽’ 단체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결정적인 지점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경성제대가 대학의 차원에서 이 연구회의 결성 및 운영에 체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다. 애초 연구회를 제안했던 아마 다 총장은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는데, 이 회장직은 아마다가 경성제대 총장으로 재직되는 동안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경성제대 교수 하야미(速水滌)가 차기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당연히 그에게 회장직이 승계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리고 이 관례는 만몽문화연구회의 후신인 대륙문화연구회까지 이어졌는데, 1946년 6월 대륙자원과학연구소가 천황의 칙령으로 경성제대의 공식적인 연구소로 승격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게다가 연구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³²⁾ 그 중에서도 법문학부와 의학부의 핵심 교수들은 연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평의원(評議員)’을 맡고 있었다. 대학평의원, 학부장 등 핵심 보직교수들이 상당수 이 평의회에 포함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대학·전문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만몽’ 관련 연구조직이 대체로 ‘만몽’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전문연구자 또는 학생들에 한정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회의 조직구성은 대단히 이례적이었고 독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비공식적인 형태이기는 했지만, 이 연구회는 총장이 수장이 되고, 대학의 주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상의 대학 연구조직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회가 지향했던 ‘만몽문화’란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만몽문화연구회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 더 나아가 학술적인 논의에 국한되지 않는 국책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만몽’을 표방하고 있는 연구조직들의 활동은 대체로 역사학, 고고학, 지나철학 등 한 두 특정 연구 분야가 중심이 되

32) 만몽문화연구회의 회원은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일부 學外의 有志者들을 ‘贊助會員’으로 참여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원은 正會員인 “本學教員職員”과 學生會員인 “本學學生生徒”이었다.

어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하는데 그치거나, 아니면 서류에는 부합하지만 학술성과 전문성이 떨어져서 막연한 정책적 제안을 반복하는데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 당시부터 학문의 사회적 기여를 표방하며 학술적인 전문성과 정책적인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많은 시도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커녕 전문성도 국책성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³³⁾ 반면 이 연구회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전공연구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연구조직들과 구별되었다. 연구회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연구회가 설정하고 있는 학술조사사업의 연구과제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연구회 평의원들의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다음은 연구회 평의원의 면면을 정리한 표이다(표 2).

[표 2] 만몽문화연구회의 평의원 구성

職位	성명	소속/전공	만몽문화연구회의 연구과제
會長	山田三良	京城帝大 總長	
評議員	烏山喜一(간사) 大谷勝鎮	東洋史學第2講座, 教授 東洋史學第1講座, 教授	만몽에 관한 역사 및 지리
	藤塚鄰 藤田亮策	支那哲學講座, 教授 朝鮮史學第1講座, 助教授	만몽에 관한 유적 및 유물
	小倉進平 高木市之助 赤松智城 秋葉隆	朝鮮語朝鮮語文學第2講座, 教授 國語國文學第1講座, 教授 宗教學講座, 教授 社會學講座, 教授	만몽에 관한 언어, 종교, 민속
	大內武次 四方博	統計學講座, 教授 經濟學第1講座, 教授	만몽에 관한 경제 및 산업
	花村美樹 奥平武彦 清宮四郎 松月秀雄	刑法刑事訴訟法第1講座, 教授 外交史講座, 教授 憲法行政法第2講座, 教授 教育學第1講座, 教授	만몽에 관한 구관 및 법제

33) 嘉治隆一, 1940, 『東方研究』, オリオン社, 502쪽.

職位	성명	소속/전공	만몽문화연구회의 연구과제
會長	山田三良	京城帝大 總長	
	戶澤鐵彦 安倍能成	政治學第1講座, 教授 哲學哲學史第1講座, 教授	그 밖의 만몽에 관한 인문과학적 사항
	上田常吉 今村豊(간사) 高楠榮	解剖學제1강좌, 教授 解剖學제3강좌, 教授 産科學婦人科學講座, 教授	만몽제민족의 체질인류학
	杉原德行	藥理學第2講座, 教授	만몽에 관한 약물학
	森爲三 小林晴治郎	豫科教授, 動物學 微生物學第2講座, 教授	만몽에 관한 동물, 식물, 광물
			그 밖의 만몽에 관한 자연과학적 사항
	渡邊洞雲(간사) 內藤正一	學生監, 助教授 軍關係	-
學生委員	東郷宣秀 金田義三 竹村勇 森田傳一郎	法文學部 學生委員 法文學部 學生委員 醫學部 學生委員 醫學部 學生委員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연구회에는 동양사·중국(支那)철학·고고학(朝鮮史)·종교학 등 원래부터 ‘만몽문제’와 학문적 연관성이 강했던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 뿐 아니라, 정치학·경제학·통계학 등 사회과학 방면의 연구자들, 헌법학·법제사 등의 법학 방면의 연구자, 해부학·약리학·산부인과 등 의학 방면의 연구자, 동물학 등 자연과학 방면의 연구자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었다.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연구협력이 쉽지 않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諸분야의 연구자들이 “만몽문화”라는 공통의 연구과제 하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연구회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경성제대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했던 것이기도 했다. 경성제대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몽연구를 추구했을 만큼 제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경성제대가 처했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물론 경성제대에는

‘식민지’라는 입지조건 때문에 조선을 포함한 대륙연구에 애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수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³⁴⁾ 오히려 경성제대 교수들은 식민지에 부임하게 되면서 비로소 식민지조건을 포함한 대륙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더군다나 경성제대는 제국대학이기는 했어도 식민지에 소재했기 때문에 교수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다.³⁵⁾ 이들 교수들의 지도를 받는 이른바 ‘학문후속세대’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아직 신생대학에 불과했던 당시 경성제대에서는 분과학문을 넘어서 분과학문들 간의 종합적 고찰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용이했던 것이다.

2. 만몽연구를 둘러싼 경합과 만몽문화연구회의 활동

어쨌든 경성제대에서 대륙연구가 부상하게 된 데에는 ‘만몽문제’를 중심에 두고 경성제대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시도했던 야마다 총장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만몽문화연구회의 결성 및 조직적 특징은 총장으로서 그의 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야마다 총장이 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만몽문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란 경성제대의 차원에서는 직면하고 있는 대학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활로의 개척이라는 의미가 강했지만, 시선을 조금 넓혀 일본제국의 차원에서 보면 새로 편입된 ‘만몽’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포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경성제대가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도 존재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당시 일본 외무성이 추진하고 있던 동방문화사업, 특히 만몽문제와 관련

34) 경성제대의 교수구성과 특징에 대해서는 박명규·정근식 외, 2010, 『식민권력과 근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출판문화원을 참조.

35) 경성제대는 다른 제국대학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좌의 종류와 수가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강좌의 종류와 수가 늘어났던 것은, 1927년 초대 법문학부장 速水滉이 실도하고 있듯이, 본토학계의 연구자들이 식민지의 대학에 부임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서 조교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제국대학 교수직을 보장함으로써 연구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速水滉, 1927, 『半島文化と大學の使命(三)』 『京城日報』 1927년 2월 28일~3월 2일자 참조.

된 대만문화사업(對滿文化事業)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다 총장이 만몽문화연구회가 결성되지 직전인 1932년 11월 14일, 일본 외무대신 우치다(內田康哉)에게 「대만문화사업(對滿文化事業)에 관한 비견(卑見)」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³⁶⁾

이 의견서에서 아마다는 일본 외무성이 만주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은 “만주국을 위해 만몽문화 연구의 지도 및 원조를 행함과 동시에 우리 제국을 위해 만몽문화의 진상(真相)을 천명하여 對滿정책의 전반적인 시설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對滿문화사업은 단지 순수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만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상의 개선에 필요한 ‘실제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게 된다. 요컨대 그는 만몽문화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성 뿐 아니라 만주국의 설립이라는 실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책성도 더불어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시 외무성이 주도하고 있었던 만주 문화사업의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일본 외무성은 신생 만주국의 봉천(奉天)에 국립문화연구원을 비롯하여 박물관과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현지(現地)에 문화시설을 설립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외무성은 1923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칙령 209호로 외무성에 신설된 ‘대지(對支)문화사무국’이 관할하는 대지문화사업(1925년 ‘동방문화사업(東方文化事業)’으로 개칭, 여기서는 동방문화사업으로 통칭하겠음)이 그것이었었는데, 중국 내부의 반일감정을 완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³⁷⁾

36) 이하 인용부분은 山田三良, 「對滿文化事業ニ關スル卑見」, 1932년 11월, 外務省外交史料館 소장문서(Ref: B0501521200)에 의거한다.

37) 동방문화사업을 비롯한 일본의 對중국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阿部洋, 2004, 『對支文化事業』의 연구, 汲古書院 및 山根幸夫, 2005, 『東方文化事業の歴史—昭和前期における日中文化』

사실 일본이 동방문화사업을 착수하게 된 배경에는 1920년대까지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고 있었던 의화단사건의 배상금 문제가 있었다.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열강들을 대상으로 배상금의 지불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노골적인 이권취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중국 내외에 들끓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열강들 중 특히 미국은 배상금의 비지급분 지급중단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지급받은 배상금을 기금으로 중국에서 문화 사업을 전개했다. 배상금 지급중단 및 반환이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배상금 지급중단은 거부했지만 대신에 이 배상금을 기반으로 중일 공동의 문화사업을 천명했는데, 이것이 이 문화사업의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애초 이 사업이 배상금 반환이라는 국제적 여론을 피하기 위한 공여지책에서 출발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받은 돈으로 중국에 친일세력을 부식(扶植)시키겠다는 발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국과의 공동사업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은 중국인들의 호응이 적었던 ‘교환유학’ 보다는 일본의 영향권 속에 있는 지역에 연구소, 도서관 등 이른바 문화시설을 설립하는 데 집중되었다. 베이징의 인문과학연구소, 상하이의 자연과학연구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런데 1928년 제남(濟南)사건을 계기로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형식적인 공동운영조차 여의치 않아지자, 일본은 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일본 내의 동양학, 중국학의 연구지원, 연구기관의 설립에 적극 관여하면서, 제국일본의 문화적 권력을 중국까지 전파·확장해 나간다는 국책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외무성은 1929년 일본 본토에서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실현시키는 한편, 1932년 만주국이 탄생한 이후에는 동방문화학원의 현지기관의 형태로 ‘국립문화연구원’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었다.

의견서에 따르면, 아마도 총장도 이런 ‘국립문화연구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에 따르면 외무성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문화연구원은 “동양 고유문화의 발양(發揚)을 주요임무”로 설정하고 “유불이교(儒佛二敎)”를 주로

연구하여 이를 “만몽에 진흥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응급조치”로서는 적당할지는 몰라도 “만몽문화 연구사업 실행의 일반방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유불이교”의 연구라는 것은 사실 일본 본토의 동방문화학원이 이미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해야 할 사항”을 구태여 만주 문화사업 추진의 핵심 방향으로 삼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총장은 신설되는 국립문화연구원은 동방문화학원의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선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對滿문화사업은 오히려 시급한 당면 과제를 연구 사업으로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만몽문화연구사업의 선결 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滿蒙의 민속, 종교 및 도덕에 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는 것”, 둘째, “만몽민족의 언어, 인종, 풍속, 관습에 관한 조사와 민족분포의 인문지리·역사·고고학에 관한 자료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연구방향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이미 남만주철도회사가 수집해 왔던 것들이다. 따라서 향후의 사업은 동방문화학원이 아니라 “만몽문화의 조사에 多大한 경험을 가진” 만철조사부, 그리고 “만주문화의 연구에 特殊의 密切한 關係를 가진” 경성제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의견서에서 아마도 총장은 만몽문화연구사업(또는 對滿문화사업)은 만주국의 건설이라는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무성 동방문화사업이 지금껏 주력해 왔던 對支문화사업과는 “그 사정 및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며, 따라서 경성제대도 자문기관으로써 만몽문화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에 적극 관여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마다가 의견서에서 만몽문화연구사업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던 세 가지 연구주제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기된 연구주제들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의견서 제출 직후에 결성된 만몽문화연구회의 사업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마다는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를 결성하면서 경성제대가 이러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 인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으며, [표 2]의 평의원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대학의 차원에서 만몽문화연구사업의 핵심과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아마다 총장은 만몽문화연구회의 결성을 통해, 학술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책적인 측면에서도 경성제대가 만주국의 만몽문화사업에서 핵심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제국대학으로서 존재의의를 입증하는 한편, 만주국 및 외무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성된 만몽문화연구회는 공동연구조사의 수행과 공개강의의 실시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32년 12월 17일 결성된 만몽문화연구회는 1933년 6월 2일 공식적인 발회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첫 사업은 만몽학술강연회였다.³⁸⁾ 강연주제는 경성제대 약리학제2강좌의 교수 스기하라(杉原德行)의 「훈춘 및 간도지방 시찰담」과 동양사학제2강좌의 교수 도리아마(鳥山喜一)의 「고대만주의 민족과 문화」였는데, 강사들은 연구회 결성 이전부터 만주국 일대의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전문 연구자들이었다.³⁹⁾ 만몽문화연구회는 곧이어 ‘만선사(滿鮮史)’ 연구로 지명했던 총독부 수사관(修史官) 이나바(稻葉岩吉)를 초빙하여 「청조(淸朝)를 중심으로 한 만선사」이라는 주제로 5회 연속강의를 개최하여 만주 문제에 대한 식민지 사회의 대중적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⁴⁰⁾

한편 연구회는 1933년부터 경성제대 연구자들의 만주시찰 여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연구회는 기본적으로 비공식적인 학교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 현재의 자료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결과보고로 이어진 것만 보더라도 1930년대 동안 최소한 5차례 이상의 만몽학술 여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야케

38) 정규영, 1999, 앞의 논문, 24쪽.

39) 스기하라는 한약연구로 지명했던 의학자로 이미 당시에는 조선을 넘어 만주 일대로 한 약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고, 도리아마는 동양사 연구자로 발해 연구로 유명했다.

40) 『靑丘學叢』 제13호, 1933, 188쪽.

41) 이것은 발간된 「만몽문화연구회보고」로부터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세한 것은 [표-3]을 참조.

(三宅鹿之助, 오우치(大内武次), 시가타(四方博) 등 경제학 연구자들은 1933년 봄 만주국을 시찰하여 농업사정을 조사하였고, 1933년에서 34년에 걸쳐서 발해유적 발굴한 도리아마(鳥山喜一)의 시찰여행, 1934년 만몽 각지 소수민족의 민족성을 조사한 심리학제1강좌 아마노(天野利武)의 시찰여행, 1934년에서 37년에 걸쳐 만주국 각지에서 체질인류학적 조사를 수행한 해부학제3강좌 이마무라(今村豊)의 시찰여행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시찰여행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만몽문화연구회보고(滿蒙文化研究會報告)』라는 형태로 출간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만몽문화연구회보고」의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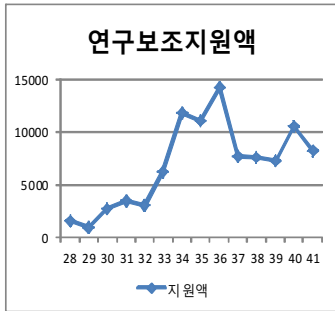
권호	저자	제목	비고(조사시기)
1册(1934)	三宅鹿之助, 大内武次, 四方博	滿洲農業事情概說	1933년 만주국
2册(1935)	鳥山喜一	北滿의 二大古都址	1933년, 1934년
3册(1937)	天野利武	滿蒙諸民族의 民族性的의 調査	1934~1937년
4册(1938)	今村豊, 島五郎	蒙古族 및 通古斯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補遺	1938년 7월
5册(1939)	末松保和	熱河·北京의 史的 管見	1938년 7월
6册(1940)		蒙疆調査報告	1939년 7~9월
7册(1942)		滿洲開拓青年義勇隊 勃利訓練所의 衛生調査報告	1941년 하기휴가

한편, 식민사회를 대상으로 했던 학술강연회의 내용은 『팸플릿』의 형태로 출간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1933년 만몽문화연구회 발족을 기념해서 이루어진 도리아마(鳥山喜一)의 강연, 「고대만주의 민족과 문화」와 1937년 만몽학술강연회에서 이루어졌던 스즈키(鈴木武雄)의 강연, 「이른바 北鮮루트에 대해서」가 활자화되었다.

학교의 차원에서도 만몽문화연구회의 결성 및 활동은 ‘대륙 유일의 제국대학’으로서 경성제대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과시하는 전기가 되었던 듯하다. 실

제로 경성제대 교수들은 제국학사원, 일본학술진흥회 등 일본 본토의 학술지원 기관에 연구보조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는데, 1934년 이후 지원신청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지원이 확정된 주제의 대부분은 조선과 만몽에 집중되어 있었다([표 4] 및 [표 5]를 참조).⁴²⁾ 특히 만몽에 관한 연구는 전체 지원 금액의 28%로 만몽문화연구회의 활동시기와 상당부분 겹쳐있으며, 연 지원규모 750~2,000엔 이 넘는 대형과제가 많았다.⁴³⁾ 제국대학의 특장상 학문분야별로 개별화되기 쉬운 강좌구조 속에서도 ‘만몽’은 경성제대 특유의 연구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만몽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것은 만몽지역을 포함하여 대륙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던 제국 학술체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연구비의 확보로 이어졌다. 즉 경성제대는 ‘만몽문제’를 통해 제국적 이해관계에 부응하면서 조선총독부 외에도 연구와 조사를 지원할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낼 가능성을 확보했던 것이다.

[표 4] 연구보조지원액의 추이



[표 5] 연구보조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연구 주제	법문학부		의학부		합계	
	채택 건수	지원 금액	채택 건수	지원 금액	채택 건수	지원 금액
조선	13	35,330	23	20,450	36	55,780
만몽	4	7,720	2	10,650	5	18,470
중국	1	500	0	0	1	500
기타	3	2,700	16	16,770	19	19,470
합계	19	46,250	42	47,870	61	94,120

42) 경성제대 교직원외의 외부 연구비 수혜 사항은 『京城帝國大學一覽』 각년도판에 수록되었는데, [표 4]와 [표 5]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43) 정준영, 2009, 앞의 논문, 215쪽.

나아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연구회의 활동은 대규모의 집단적 연구 및 조사사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국대학 특유의 강좌구조가 학문분야별 분권주의를 야기하며, 학문분야 사이의 협력이나 다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이지만, 만몽문화연구회는 강좌교수들에게 정책적인 기획 아래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滿蒙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해 전개된 연구회의 대중적 활동을 통해, 경성제대는 식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경성제대는 만몽에 대한 지식 보급을 통해서 제국의 대륙침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특히 대중강연회, 전시회, 팸플릿 출간 등은 ‘만몽지역’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진출’욕망을 자극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대학은 지식의 대중화라는 방법을 통해 식민사회와 만나고, 이들의 집단적 요구와 결합하려 했던 것이다.

요컨대 경성제대는 ‘대륙’을 대학사명의 중심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일정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륙연구를 통해 경성제대는 ‘동화정책의 구현’이라는 한정된 과업에서 벗어나 ‘제국팽창의 문화적 교두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부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30년대 중반까지 경성제대는 ‘대학자치’ 전통을 확립하는 등 제국대학으로서의 ‘내실’을 꾀하는 한편, 제국적 이해와의 밀착을 통해 제국 전체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고심했다. “半島와 滿蒙의 文化開發”은 일본제국 내 다른 제국대학에서는 불가능한 “대륙유일의 제국대학”의 고유한 사명으로 강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더욱이 만몽문화연구회는 학부와 강좌로 분열된 제국대학 특유의 분권적인 조직과는 별도로, 정책적 조사연구를 위한 대학 차원의 조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전학적인 조직을 통해 대학당국은 단순히 이념적으로 국책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이 일본세력권에 들어가면서 생긴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점하려 했던 것이다. 경성제

대가 대학차원에서 ‘만몽’이라는 정책적 소재, 대규모 연구가 가능한 조직적 기반, 적극적인 대중홍보를 모색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학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전술했던 경성제대 처했던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륙문제의 정책적 강조와 대규모 연구사업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관료와 군부와 학계의 결탁, 즉 전경수의 개념으로 MAB복합의 결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한 교수사회 내부의 저항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 교수들은 제국대학의 교수로서 근본적으로 국가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국권력과 지나친 결탁이 ‘교수자치’를 제약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다.

한편, 식민사회 특히 조선인들의 경우에도 대학당국의 적극적인 대중홍보에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만몽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한 대중적 장치는 전문가들 특유의 비밀주의(esoterism)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학술지식의 대중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학술적 권위와 전문 용어 속에 가려져 있던 학술지식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당국이 주관했던 대륙문화강좌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전쟁국면에 돌입하게 되자, 점차 식민당국과 제국권력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선전공작의 장이 되고 말았다. 경성제대 교수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역만리 전쟁터까지 진출하여 조사시찰을 수행하고 또 그 성과를 대중강좌를 통해 사회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식민사회로부터의 태생적 고립을 해소하려 했지만, 제국적 이해와의 결합 자체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편승하여 침략전쟁에 관여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인들의 불신감을 불식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Ⅳ. 만몽에서 대륙으로 - 전쟁도구로서 연구체제

더군다나 경성제대는 1939년 식민당국의 이른바 ‘대학정벌(大學征伐)’을 계기로 외부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상실하고 말았다.⁴⁴⁾ 교수자치의 상징이었던 총장선거가 1940년 하이미(速水滉)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을 계기로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되었고, 이 무렵부터 제1고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아베(安倍能成)를 비롯하여 경성제대를 떠나는 교수들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1939년에서 1941년 사이에 경성제대를 떠난 법문학부 교수들은 정년퇴임을 제외하고도 9명, 전체 강좌교수 중 15.2%나 되었다.

물론 이들 모두가 ‘대학정벌’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식민지를 떠난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1943년 동경제대 국어국문학 제1강좌 교수로 영전(轉任)하게 되어 경성을 벗어난 토키에다(時枝誠記)가 외지생활이 힘들지 않았느냐는 지우(知友)의 위로에 서러운 눈물을 보였다는 유명한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이 경성제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던 것도 분명해 보인다.⁴⁵⁾ ‘정벌’ 직후인 1940년, 경성일보가 마련한 좌담회에 참석한 교수⁴⁶⁾들은 경성제대는 ‘외지(外地)대학’으로써 내선일체, 다시 말해 ‘황국신민의 연성(鍊成)’이라는 특수한 사명을 가지며, 따라서 대학의 연구 및 교육 또한 철저하게 이 특수사명에 입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대학 자치와 관련해서도 경성제대는 내지의 대학들과는 다르

44) 정준영, 2011, 앞의 논문, 74쪽.

45) 浜本純逸, 1985, 「時枝誠記の涙-國語研究者の思想について」, 『日本文學』 34(9).

46) 『城大の使命を語る』, 『京城日報』 1940년 7월 13일. 이 좌담회에는 경성일보사장 미타라이(御手洗辰雄)을 비롯하여, 경성제국대학 교수, 학무국 관계자, 조선군 관계자, 조선신탁, 식산은행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하고 있다. 그 중 경성제국대학 교수로는 법문학부장 오우치(大内武次), 의학부장 이마무라(今村豊), 법문학부 교수 오다카(尾高朝雄), 키요미야(清宮四郎), 스즈키(鈴木武雄), 그리고 교수직에서 물러나 조선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던 야스다(安田幹太) 등 6명이 참석했다. 신임총장이 부임하기 직전에 열린 간담회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문학부장, 의학부장, 학생주사 등 대학 핵심보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좌담회에서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학당국 및 대학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며, “대학의 자치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 한계는 대학존립의 의의, 존립의 사명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식민지적 한계를 넘어 제국의 최고학부(最高學府)로서 위상을 제고하려 했던 1930년대의 시도들을, 대학당국과 교수들이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성제대는 최소한도의 자치성도 상실하여 일개 식민 통치기관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갔다. 대륙문화연구회와 같은 대학 수준의 연구조직은 일제의 대륙진출을 뒷받침하는 “대륙문화전쟁의 첨병”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어 갔고, 친목회의 성격이 강했던 학우회(學友會)는 1940년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민을 연성(鍊成)”한다는 새로운 대학이념을 실현하는 국민총력경성제국대학연맹(國民總力京城帝國大學聯盟)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경성제대의 만몽문화연구회도 새로운 전기(轉機)에 직면하게 된다. 1938년 6월 몽강학술탐험대(蒙疆學術探險隊)의 발족을 계기로, ‘만몽’을 ‘대륙’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연구조직의 개편이 모색되었다. 시국적 상황 속에서 출발했던 만몽문화연구회는 급변하는 시국을 반영하여 ‘대륙문화연구회’로 면목을 일신했던 것이다. 그런데 몽강학술탐험대의 결성은 다소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되었다. 경성제대의 학생단체(학우회) 중 하나인 산악부는 내몽고 인근 찰남(察南)지역의 산악등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1938년 현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점령지의 치안을 담당했던 장자커우(張家口) 주둔 일본군 부대 및 괴뢰정부인 察南자치정부에 협조를 구했는데, 오히려 이들 당국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등반계획은 내몽고 및 소오대산(小五台山) 탐험계획으로 바뀌었다.⁴⁷⁾ 나아가 이 계획은 미나미(南次郎) 총독을 비롯한 식민통치 기관에서도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 내었고, 이에 고무된 대학당국은 산악부 중심의 탐험계획을 더욱 확장하여 전학적 차원의 학술탐험계획을 수립하였다. 탐험에 관련된 경비 및 교통편도 각 기관의 적극적 후원에

47) 탐험대의 결성경위에 대해서는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1939, 『蒙疆の自然と文化-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隊報告書』, 古今書院를 참조.

힘입어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했다. 만몽문화연구회 보조금 500엔을 비롯하여, 외무성 동방문화사업부 보조금 3,000엔, 미나미 조선총독 1,000엔, 조선총독부외무부 500엔, 조선은행 1,000엔, 조선식산은행 1,000엔, 사업가 고바야시(小林采南) 1,000엔, 동양척식주식회사 500엔, 오사카마이니치신문 1,000엔 등 9,500엔 이상의 보조금과 후원금을 확보했고, 총독부철도국과 만주국철도총국, 만철 등은 탐험대원들의 교통편 및 화물수송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반응에 고무된 만몽문화연구회는 몽강학술탐험대가 발족되기 3일전인 1938년 6월 대륙문화연구회로 새로 거듭났다. 당시 총장이었던 하야미는 이러한 개편의 이유에 대해서 ① 만몽문화연구회 조직의 확대강화의 필요성, ② 중일전쟁의 시국적 중대성, ③ 연구대상을 滿蒙뿐만 아니라, 北支, 蒙疆 등에 확대할 필요성 등으로 설명했다.⁴⁸⁾ 다시 말해 대륙문화연구회는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새롭게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던 대륙의 점령지역에 대해 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강연회와 전람회의 형식으로 식민지사회에 보급하여 “성전(聖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⁹⁾

물론 대륙문화연구회의 조직형태와 활동방향이 만몽문화연구회 시절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륙문화연구회는 여전히 총장을 수반으로 하여 경성제대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학교조직은 아니었고 사업의 기본 방향 또한 대체로 그대로 이어졌다. 교수들이 중심이 되었던 학술여행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탐험대 파견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 간헐적으로 이어졌으며 주제도 들쭉날쭉했던 대륙강연들이 대륙문화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대륙문화강좌’로 개편되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 차별화되는 지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륙’이 ‘만몽’을 대체했다는

48)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1939, 『大陸文化研究』 팜플렛』 第3冊, 1쪽.

49)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1940, 『大陸文化研究』, 岩波書店, 1쪽.

지점에 있었다. 왜냐하면 ‘만몽’연구가 대체로 관동군에 의해 치안이 유지되고 있던 만주국 및 인근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에, 대륙문화연구회 단계에서의 대륙연구는 내몽고지역, 북중국지역 등 중일전쟁을 전후에 일본군이 획득한 점령지가 연구대상으로 설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치안이 대단히 불투명한 지역으로 일본군의 절대적인 지원과 보호가 없으면 연구 및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즉 점령지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조사행위는 그 자체로 군대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전쟁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만몽’에서 ‘대륙’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연구대상 지역지의 확대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1차 몽강학술탐험대의 활동을 살펴보면, 활동의 대부분이 선무활동과 조사활동의 연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내몽고 괴뢰정부를 대상으로,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연설이 이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대를 대동한 조사활동이 계속되었다. 경제학반, 동물학반, 식물학반, 지리학반, 지질학반 등으로 나뉘어져 수집된 정보는 현지의 점령지 괴뢰정부와 조선총독 등 식민지조선의 유력자들 앞에서 보고되었고, ‘대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사진전시회, 라디오방송강연, 대중강연, 영화상영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⁵⁰⁾ 대륙문화연구회는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점령지역에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식민당국뿐 아니라 식민사회로부터 전례 없는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⁵¹⁾ 만몽문화연구회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전쟁에 연루되어 갔던 것이다. 다시 말해, 몽강학술탐험대 활동의 성공을 계기로 대륙문화연구회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문화전쟁의 첨병’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1939년

50) 제2차 몽강학술탐험대는 1939년 7월 18일 편성되었는데, 결성의 계기가 된 것은 법문학부 학생들이 주축이 된 ‘北支蒙疆연구회’의 학생탐험대 파견요청이었다. 법문학부 학생 5명, 의학부 학생 7명, 그리고 지도교수로 구성된 탐험대는 1939년 7월 18일부터 9월 5일 까지 몽강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조사, 현지인의 생활상태에 대한 조사, 위생상태에 대한 조사, 先天性梅毒에 대한 조사, 의학적 곤충에 대한 조사, 몽고인들에 대한 진료 등을 수행하였다.

51) 「權威者に聽く蒙疆最近の姿」 『大阪毎日新聞』 1938年10月17日.

대학자치를 확보해 주었던 최소한 관례들이 무너지고, ‘황국신민의 연성’이 대학의 공식적 사명으로 자리 잡게 되자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륙문화연구회가 ‘시국적 필요성’을 감안해 개최한 공개강연회인 대륙문화강좌는 대학인들이 생산한 학술지식이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동원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대륙문화강좌는 1939년과 194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1939년의 제1회 대륙문화강좌는 24개의 강의가 주3회 8주에 걸쳐 행해졌다. 제1회 대륙문화강좌의 강의 및 담당자는 [표 6]과 같았다.

[표 6] 제1회 대륙문화강좌(1939.9.9~1939.11.8)

학부	담당	소속 및 직위	강좌제목
법문 학부	尾高朝雄	教授(법리학강좌)	국가의 목적과 대륙경영
	森谷克己	助教授(사회정책)	東亞신질서의 건설
	鳥山喜一	教授(동양사제2강좌)	北아시아史 개론
	秋葉隆	教授(사회학강좌)	北아시아의 민속
	天野利武	教授(심리학제1강좌)	北支민족성論
	大谷勝眞	教授(동양사제1강좌)	西域문화사 개론
	佐藤泰舜	教授(종교사강좌)	支那불교사論
	鈴木武雄	教授(경제학제2강좌)	支那화폐論
	靜田均	助教授(상공정책)	만주산업의 개발과정
	小田忠夫	教授(재정학강좌)	만주국제정의 특징
	大内武次	教授(통계학강좌)	東亞경제지리
	藤田亮策	教授(조선사제1강좌)	所謂 北方문화에 대해서
	藤塚鄰	教授(지나철학강좌)	清朝문화와 李朝學人
奥平武彦	教授(외교사강좌)	英支交涉史	
辛島驍	教授(지나어지나문학강좌)	支那근대소설論	
의학부	今村豊	教授(해부학제3강좌)	北아시아 인종개론
	水島治夫	教授(위생학예방의학)	日滿의 인구문제
	衫原德行	教授(약리학제2강좌)	韓方醫學 想念에 대해서
	石戸谷勉	講師(약리학제2강좌)	北아시아의 식물자원

학부	담당	소속 및 직위	강좌제목
의학부	小林晴治郎	教授(미생물학제2강좌)	만주 및 北支의 전염병 및 기생충병
	多田文男	囑託(지리학), 동경제대 조교수	내몽고에서 농경지대와 유목지배의 경계선과 그 이동
예과	森爲三	豫科教授(자연과학)	北아시아의 동물
교외	澁谷禮治	조선무역협회 부회장	支那事變의 처리에 관련하여
	西原貢	조선군 경리부장 주계소장	武人이 본 山西의 資源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만몽문화연구회 당시의 대중강연회와는 달리, 대륙문화강좌는 대륙의 역사, 지리, 자연, 사상,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는데, 법문학부에서는 교수 13명, 조교수 2명, 의학부에서는 교수 3명, 강사 촉탁 2명, 그리고 예과교수 1명과 외부인사 2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강의의 소재는 북아시아대륙, 그 중에서도 중국과 ‘몽강(蒙疆)’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연구회는 제1회 강좌의 성공을 바탕으로 1941년 제2회 강좌를 개최했다. 5월부터 22개 강의가 주3회 3시간씩 진행되는 형식이었다. 제1회 강좌와 비교했을 때, 제2회 강좌는 두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첫째는 강좌의 주제가 대체로 동남아시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일본제국이 남진론을 모색하고 있었던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동남아시아, 남중국, 남양군도, 인도 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시국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둘째로 의학부 교수들의 태국에 대한 보고발표가 많았다. 이것은 1940년 12월 의학부 이와이(岩井誠三郎) 교수를 중심으로 교수, 조교수 8명, 기타 학생 약간 명이 미츠이물산의 후원을 얻어 의학친선사절단으로 태국을 방문하여 대학, 의료시설 및 위생 상태를 시찰한 것과 관련이 깊다.⁵²⁾

52) 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 『紺碧遙かに』, 657-659쪽.

[표 7] 제2회 대륙문화강좌(1941.5.5~1941.6.18)

학부	담당	소속 및 직위	강좌제목
법문 학부	尾高朝雄	교수(법리학강좌)	대동아공영권의 문화이념
	鳥山喜一	교수(동양사제2강좌)	東南아시아史 개론
	大谷勝眞	교수(동양사제1강좌)	東洋史상으로 본 인도사
	藤田亮策	교수(조선사제1강좌)	支那고문화와 고고학
	奥平武彦	교수(외교사강좌)	英支관계의 초기
	花村美樹	교수(형법형사소송법강좌)	新중국의 사법제도
	鈴木武雄	교수(경제학제2강좌)	東亞幣制論
	小田忠夫	교수(재정학강좌)	영국령 인도의 재정
	伊藤俊夫	조교수(농업정책)	남양농업과 그 경제적 특징
의학 부	島五郎	조교수(해부학교실)	동남아시아의 인종상 : 태국인을 중심으로
	中村拓	교수(의화학강좌)	東亞지도의 역사적 변천
	佐藤武雄	교수(범의학강좌)	혈액형으로 본 東亞 諸민족의 이동
	大澤勝	교수(약리학제1강좌)	支那치료의학에 대한 회고
	岩井誠四郎	교수(내과학제1강좌)	의학을 통해 본 태국
	小衫虎一	교수(병리학제2강좌)	남방支那 및 태국에서 지방병 및 풍토병에 대한 상식
	北村精一	교수(피부과학비뇨기과학강 좌)	東亞공영권에서의 성병문제
이공 학부	石橋弘毅	교수(분석화학강좌)	만주국의 연료자원과 人造석유공업
예과	近藤時司	예과교수(국어)	北支 및 中支에서 일본어문제
	森爲三	예과교수(자연과학)	東亞공영권의 동물자원에 대해서
	竹中要	예과교수(자연과학)	東亞건조지대의 식물경관
	篠田治策	경성제국대학 총장	점령지 행정론
교외	荻原淺男	前북경사범학교 직원	北京에서의 文教문제

이처럼 대륙문화강좌는 철저하게 시국적 관점에서 학술지식을 대중화하
고, 이를 통해 “大東亞에 관한 기초지식”⁵³⁾을 체계적으로 보급한다는 목표

에 입각하여 기획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화된 지식’은 시국에 대한 인식의 강화라는 통치상의 목표 이외에도 제국의 대륙 진출을 빌미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세속적 욕망과도 영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인기를 끌었다. 제1회 강좌 때 1,918명이었던 청강자의 수는 제2회 강좌에 와서는 8,747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의 반대급부로 지식생산의 도구화, 학술지식의 도구화도 가속화되었다. 학술적 권위와 전문용어 속에서 가려져 있던 학술지식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대중강좌의 방식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대륙문화강좌는 식민당국과 제국권력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선전공작의 장(場)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지금껏 ‘대륙’ 연구를 수행해왔던 연구자들이 국책적인 관점에 따라 동남아시아 관련 강의에 대거 투입되었던 제2회 강좌 구성은 국책과 학리의 균형을 주장해왔던 경성제대 대륙문화연구회의 주장과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전쟁 하 대학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V. 나가며 : 군기(軍旗)와 과학

이상에서 우리는 경성제대 만몽문화연구회와 대륙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만주사변 이후 경성제대의 방향전환이 가졌던 의미를 검토했다. 특히 이런 방향전환의 결과로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이른바 ‘대륙’연구가 어떤 지향과 특징을 가졌고, 그리고 전쟁의 심화 속에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미 상세히 검토했듯이, 경성제대의 방향전환은 일제의 대륙침략이라는 시국적 상황에 대한 대응 속에서 표면화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식민지 사회 속에서의 고립을 극복하고 ‘문화개발’이라는 새로

은 개념 속에서 식민지라는 입지조건이 가진 제국적 가치를 확인하려는 존재증명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변방 식민지관학에서 버려진 학지(學知)가 “문명서점(文明西漸)”의 시국 속에서는 오히려 만몽문화의 개발 도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이 그토록 “탐욕스러울 정도로 대륙의 새로운 점령지를 연구”에 몰입했던 이유를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 만몽문화연구회와 대륙문화연구회는 조선연구를 통해서 다듬어진 식민지 학지(學知)가 ‘국책’에 부응해서 어떻게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확산에 기여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시험대였다. 연구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학술여행 대신에 학생들을 이끌고 제국의 변경에 뛰어들었던 몽강학술탐험대, 대학 수준에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국책강좌를 모색했던 「대륙문화강좌」는 본토의 제국대학이었다면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실험이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국책’과 ‘학리’, ‘군기(軍旗)’와 ‘과학의 깃발’ 사이의 행복한 동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1938년 6월 전례가 없었던 몽강학술탐험대의 활동에 고무되었던 법문학부 교수 오다카(尾高朝雄)가 탐험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부여했을 때, 그런 희망은 정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원래 國策과 學理란 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항상 平行하게 進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대륙의 정치적, 경제적 경영은 먼저 대륙의 풍토, 대륙의 문화에 대한 冷徹周到한 과학인식에 입각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軍旗가 나아가는 곳에는 과학의 깃발도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대륙진출의 제일선에서 얼마나 군사시설, 정치경영과 학술조사, 과학연구가 내적으로 상호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몇 번이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사무치게 경험한 바이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런 대륙문화전쟁을 위한 첨병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⁵⁴⁾

“軍旗가 나아가는 곳에는 과학의 깃발도 같이 나아가”는 현장을 탐험대의 활동 속에서 직접 목격했던 오다카에게, “대륙문화전쟁”이란 더 이상 상

54)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硏究會 編, 1939, 위의 책, 15-16쪽.

징적인 구호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었다. 현지인을 만나 강연과 연설을 하고, 군대를 대동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들을 탐험을 지원했던 당국자들에게 보고를 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점령지의 통제를 위해 이루어지는 문화전(文化戰), 선전전(宣戰戰), 정보전(情報戰)의 활동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학리(學理)’와 ‘과학’이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대학의 자치는 식민지라는 취약한 상황 속에서 급속하게 무너졌고, 대학의 사명은 국책적 가치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군기(軍旗)가 과학을 압도할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해 버리는 상황 속에서, ‘학리’는 빈껍데기만 남았고 학자는 전쟁을 위한 진짜 첩병 — 오다카와는 다른 의미에서 — 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참고문헌

- 『京城帝國大學一覽』各年度
『朝鮮總督府官報』, 各年度 豫算項目.
『京城帝國大學學報』各年度
『大藏省年報』(大藏大臣官房文書課 刊行), 1929~1943年 收錄分.
『朝鮮總督府特別會計歲入歲出豫定計算書各日明細書』, 1938, 1941, 1942年度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1939, 『大陸文化研究パムフレット』第3冊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1939, 『蒙疆の自然と文化—京城帝國大學蒙疆學術探險
隊報告書』, 古今書院
京城帝國大學大陸文化研究會 編, 1943, 『續大陸文化研究』, 岩波書店
嘉治隆一, 1940, 『東方研究』, オリオン社
廣重徹, 2002, 『科學の社會史』, 岩波書店
大野謙一, 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藤原彰・功力俊洋 編, 1983, 『資料日本現代史 8』, 大月書店
박명규·정근식 외, 2010,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服部宇之吉, 1926, 「京城帝國大學始業式に於ける總長訓辭1」 『文教の朝鮮』 10号(1926年6
月)
浜本純逸, 1985, 「時枝誠記の涙-國語研究者の思想について」 『日本文學』 34(9).
山根幸夫, 2005, 『東方文化事業の歴史-昭和前期における日中文化交流』, 汲古書院.
山田三良, 1932, 「對滿文化事業ニ關スル卑見」, 1932年11月, 外務省外交史料館 (Ref :
B0501521200)
_____, 1957, 『山田三良自敘傳』, 自家出版
速水滉, 1927, 「半島文化と大學の使命(三)」 『京城日報』 1927.2.28.~3.2.
阿部洋, 2004, 『「對支文化事業」の研究』, 汲古書院
安倍能成, 1929, 「卒業生に残す」 『文教の朝鮮』 46号
原敬, 1919, 「朝鮮統治私見」
이만규, 1949, 『조선교육사』 하권, 거름출판사
全京秀, 2005, 「아편과 천황의 식민지/전쟁인류학 : 학문의 對民關係」 『한국문화인류
학』 38(1)
_____, 2010, 「京城帝國大學の學術調査と「京城學派」の誕生」 『朝鮮學報』 214
鄭圭永, 1999, 「콜로니얼리즘과 學問의 정치학—15年戰爭下 京성제국대학의 대륙연
구」 『教育史學研究』 9
丁仙伊, 1998, 「경성제국대학의 성격 연구」, 연세대박사논문

- 鄭駿永,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혜계모니」, 서울대 박사논문
정준영, 2011,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조건 :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 『역사문제연구』 26호
帝國大學新聞社 編, 1941, 「なやむ路傍の人」 『帝國大學入學案内』, 帝國大學新聞社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투고일 : 2015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29일

■ Abstract ■

The Military Flag and Science : Searching a New Direction in Mission of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after Manchuria incident

Jung, Joon Young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changing direction in Mission of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KIU) after Manchuria incident, through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Manmou Cultural Research Society(滿蒙文化研究會, MCRS) and Tairiku Cultural Research Society(大陸文化研究會, TCRS). MCRS(and TCRS as the successor of MCRS) aims for knowledge production of the Continent which is the area including Manchukuo(滿洲國) and Inner Mongolia from a scientific perspective, and tries to distribute the wide knowledge and various information acquired by its academic researches to the colonial society in conformity with the national policy of Japanese Empire. Effectively, they functioned as the research units of the KIU, because the president of KIU was spearheading the organizing of MCRS and TCRS, and major academics of KIU participated in their activities. Then, why did the KIU organize them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the KIU was searching a new direction as ‘the only Imperial University in continental Asia’ and What did the KIU expect through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these questions.

Key words : Keijo Imperial University, Manmou Cultural Research Society(滿蒙文化研究會), Tairiku Cultural Research Society(大陸文化研究會)